



2016 창원조각비엔날레 총감독

YOON JIN SUP

“벌새처럼 날아 독수리처럼 쏘는 멀티 플레이어”

단색화 열풍의 주역, 국제미술평론가협회 부회장 등 여러 칭호를 지닌 윤진섭이 새로운 타이틀을 수
집했다. 지난달, '2016 창원조각비엔날레' 총감독으로 선임 된 것이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한 '창원
조각비엔날레' 총감독 윤진섭은 올해 비엔날레가 어떤 모습으로 꾸러질 것인지 귀뜸할 뿐 아니라, 현
재 단색화의 모습 그리고 미술평론이 나아가야 할 길 등 그의 통찰력을 느낄 수 있는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 이효정 기자 ● 사진 서지연

우리나라 미술계에 몸담은 사람이라면 윤진섭의 이름을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미술비평과 전시기획 두 영역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활동하는 그가, 이번에는 '2016 창원조각비엔날레' 총감독으로 돌아왔다. 국내 조각비엔날레의 포문을 연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총감독이란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된 윤진섭은 자신의 특기인 '놀이정신'을 십분 살려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려 한다.

국내에 다양한 비엔날레가 열리지만, 그중 적지 않은 비엔날레가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현상에 윤진섭은 "재미없기 때문"이란 직설적인 대답을 던진다. 한국에서 비엔날레를 하면 대중이 그 실체를 알기도 어려워 자발적으로 찾는 관객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품작들이 질적으로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외면당하는 비엔날레로 전락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총감독으로서 기지를 발휘하고자 윤진섭은 우선 국내 비엔날레의 현 상황을 파악했고, 이에 착안해 대중에게 사랑받고 관객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진정한 소통의 장을 이루는 비엔날레를 꾸리려 한다. 주제는 '억조창생(億造創生)'으로 조울 중이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백성'이란 뜻을 지닌 억조창생을, '수없이 많은 사물에 생명을 부여하여 거둬 태어나게 한다'로 재해석한 것이다. 본디 뜻에서 어떻게 이러한 주제가 나왔는지,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궁금하지만 현재로서는 비밀이다. 작가 선정에 대해 묻자, "특별한 기준은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억조창생'에 부합한다면 국내외 유명작가든 일반인이든 가리지 않고 초청할 예정이라니 그는 이번 비엔날레에 작가들의 참여 가능성을 활짝 열은 셈이다. 국내외 작가 균형에 대해서도 어느 한 곳에만 무게를 두지 않겠다는 같은 자세를 그는 고수한다. 오로지 더 나은 비엔날레, 주제가 잘 구현된 비엔날레를 꿈꾸는 윤진섭에게 물리적 안배는 큰 고려대상이 아닌 것이다.

많은 행사가 그렇듯, '창원조각비엔날레' 또한 부정적 리뷰가 따랐다. 시행 초기, 영구설치된 작품 중 일부가 관리 미흡으로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친다거나 접근성이 어렵다는 문제 또한 제기됐다. 또, 다른 비엔날레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다 보니 홍보 부실로 대중에게 알려지지 못한다는 점 또한 꼬리표처럼 달려 있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윤진섭은 "공공미술은 단순히 미술만의 영역은 아니다. 도시설계공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설치되는 조각품은 잘하면 장관이 되고 잘못하면 쓰레기가 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대중들의 기준으로 인해 눈높이를 맞추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게 되었다. 관

람객의 기준은 공공미술이 주는 자체적 조형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공공미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단계에 와있다. 이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는 이번 비엔날레가 열리는 2016년이란 시점만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해당 작품이 연속적으로 주변 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작품이 공간 안에 녹아내릴 수 있는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시행할 것이다"라는 답을 내놓는다. 적은 예산에 대해서는 소셜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홍보방안을 어필했다. 한 소셜네트워크에 대해 "새로운 창조는 손끝에서 나온다(New creation comes out of fingertips)"라는 선언을 했던 윤진섭이기에 그 대답에 어느 정도 신뢰가 간다.

단색화 열풍의 주역인 그에게 계속 이슈를 타는 단색화에 대해서도 물었다. "투자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는 그는 "언론이 단색화 열풍을 부추기는 면도 있지만, 포스트 단색화를 어떤 방향으로 조형할지 등 현재 열풍의 주역인 1세대 단색화가들의 작품이 고갈된 후의 현안이나 비전에 대한 고민이 읽히지 않는다"며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학술 및 비평적 연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젊은 비평가의 역할 또한 강조했다. "비평가의 기능은 여러 가지이지만, 지금은 작품의 옥석을 가리고 다양한 미술 현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운을 떼 그는 "모기소리만큼도 힘없는 것이 현재 비평계의 현황이다. 그렇게 비평을 하려면 과감히 붓을 꺼야 한다. 자신이 그리는 세계상 구현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위기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패기가 부족한 현재가 아쉽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젊은 평론가들에게는 "비평가는 가슴에 정직해야지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면 그걸로 끝"이란 조언을 건넸다.

끝으로, 예술을 사랑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헤매는 대중에게 그는 말한다. "밥 먹듯이 예술을 즐기라"는 그는 "생선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미각을 가졌으면 미술작품을 시작적으로 즐길 수 있는 능력도 갖춘 것이다. 상한 음식을 먹으면 토하듯, 혐오스러운 작품을 접하면 그것을 담지 않고 내뱉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이번 '창원조각비엔날레'의 관람객은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할까? 예술을 즐기고 감정에 솔직해지라 권하는 그는 말한다. "지도 보는 법만 잘 알면 된다." ■

윤진섭은 1955년 충남 천안에서 태어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와 동 대학원 미학과를 졸업 후 호주 웨스턴 시드니 대학에서 미술사와 미술비평으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1,3회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큐레이터, '제3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전시 총감독을 거쳤으며 현재 국제미술평론가협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최근 '제3회 창원조각비엔날레' 총감독에 선출돼 비엔날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